조국혁신당 '돌풍'…광주·전남 지지율 상승세 심상찮다

민주 공천 불만 민심 '지민비조' 전략 결합
각종 여론조사 결과 40% 안팎 지지율 확인
목표 의석 수 10석 초과 달성 가능성 '솔솔'

광주·전남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만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과 맞물려 민심이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등 300명을 선출한다.

46명의 비례대표는 준연동형으로 선출한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제21대 총선 때 도입됐다. 하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의 경우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송영길신당) 등의 선택지가 있다.

광주·전남에선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총선 경선 과정에서 민심 반영 없는 '친명 체제 구축' 등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만큼은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로 전환되고 있어서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타도'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기존 정치권이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 울분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장로서 시민들과 인사 지난 14일 오후 광주를 방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실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보다 더 확실하게 싸워봐라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단호하고, 더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과 맞설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 돌풍이 확인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이 광남일보, 남도일보, 전남매일,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대상 제22대 총선 2차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526명 대상 무선가상번호 100% 자동응답조사, 응답률 10.6%,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3%p)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은 40.1%로 1위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34.5%, 국민의미래 6.9%, 새로운미래 5.7%, 개혁신당 3.1%, 녹색정의당 2.1% 순이다.

KBC 광주방송의 여론조사(14-15일 광주 광산을 만 18세 이상 800명 대상 ARS 휴대전화조사, 응답률 6.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42.6%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25.0%, 새로운미래 7.1%, 국민의미래 6.5%, 개혁신당 5.4%, 녹색정의당 2.8%, 소나무당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국혁신당 바람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총선 때까지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목표 의석 수 10석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와 관련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손금주 "신정훈, 이중투표 유도" 재심 신청

"경선 기간 시·도의원 조직적 셀프 인증 의혹" 주장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나주·화순)는 18일 "신정훈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투표를 앞둔 시점인 이달 4일 나주시 동강면 주민들 앞에서 이중투표 및 중복 응답을 유도·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발표한 규탄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으로 중앙당 선관위의 경고 조치에 대해 신 예비후보는 선거 규정을 엄수하겠다고 했지만 경선 투표 기간인 11-12일 다수의 권리당원과 신 예비후보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현직 시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조직적인 이중투표 유도 및 셀프 인증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체 채팅방에서 '권리당원투표', '일반시민투표'라는 이름의 명단이 작성돼 있었고 10명 이상 중복되는 이름이 명시돼 이중투표를 조직적으로 권유·유도·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손 예비후보는 또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윤병태 나주시장도 해당 단체 채팅방에서 신 예비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셀프 인증을 해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중투표 및 셀프 인증을 통한 여론조사와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예비후보는 "신 예비후보의 이중투표 유도 발언은 전남도 선관위가 해당 사건을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이중투표 유도, 셀프 인증을 통한 관권선거를 신속하게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고발장 제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자들로 알려진 민주당을 사랑하는 나주·화순 시민모임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신정훈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주기환, 국민의미래 비례 후보 사퇴

"호남 인사 25% 우선 추천 당규에도 광주 배려 없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18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주 전 시당위원장은 이날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대표를 사퇴하겠다"며 "오늘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주 배려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인사를 25% 우선 추천하는 내용을 당규에 담고 있지만, 이번 공천에서 광주는 완전히 배제됐다"며 "당원들과의 약속을 당에서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광주시장 선거에서 보수 정당으로 최다득표(15.9%)를 얻어 오직 광주시민만 바라보고 광주 발전을 위해 정치를 했다"며 "시당위원장으로서 광주의 청년 당원과 정치 지망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광주의 정치 구도를 바꿔 광주 발전을 이루고자 했으나 실현하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선강 기자

"호남서 서울 후보 지지 호소 기막혀"

'전국 권리당원 경선' 박용진 "광주의 전략적 선택 보여달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당내 경선에 세번째 도전하는 박용진 의원은 18일 광주를 찾아 "민주당의 미래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광주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에서 강북을 후보를 뽑아 달라는 호소를, 이렇게 광주에 와서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제가 마주한 우리 당 경선의 불공정한 현실과 당 지도부 결정의 부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북을 경선을 위해 제 고향 호남에 오면서까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선에 나선 것은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당내 경쟁에서도 민주당이 늘 주장해 온 '원칙과 공정'이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고 고향에서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에 없는 일이 서울 강북을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긴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는가"라고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광주에서 호소드린다. 2002년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의 돌풍이 만든 멋진 대반전이 정권 재창출을 만들었듯, 광주의 전략적 선택으로 민주당에 반전과 역동성이 있음을 보여달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정적 동력을 박용진의 고향 호남에서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북을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18-19일 이틀간 치러진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 10%에 포함돼 경선 득표의 30% 감산 페널티를,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신인 가산점 최대 25%를 적용받는다. /박선강 기자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 2024 – 20호

광주 · 전남공동혁신도시 보유토지 공급 공고「근린생활시설용지 · 주차장용지」

1 공급대상 토지

①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연번	공급용도	지번	면적(㎡)	공급예정가격(원)	공급방법	입찰보증금(원)
1	근린생활 시설용지	48-4	673.4	1,212,120,000	경쟁입찰	입찰금액의 5% 이상
2		48-5	652.4	1,174,320,000		
3		224-3	333.1	702,840,000		
4	주차장용지	92-7	960.1	1,171,320,000		

② 분양신청 전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 분양공고에 게시된 토지현황 자료(건폐율, 용적률 등)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① 일반 실수요자 (지역 제한 없음, 개인 또는 법인)
② 1인 1필지 이상 신청 가능, 1필지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3 공급일정 및 장소 ※인터넷 접수만 가능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개찰	낙찰자 발표	계약체결
2024. 4. 1.(월) 10:00 ~ 2024. 4. 2.(화) 16:00	2024. 4. 3.(수) 10:00	2024. 4. 3.(수) 14:00 이후	2024. 4. 8.(월) ~ 2024. 4. 9.(화) 점심시간 : 11:30 ~ 12:30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jndc.co.kr)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처(9층)

※ 상기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 신청 및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하여 진행되고, 일정은 "온비드"기준으로 종료시간과 동시에 신청 시스템이 차단되며, 착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남개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①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경쟁입찰의 경우 공급 예정 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최저입찰가'이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납부한 입찰보증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 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반환

가) 납부
① 입찰보증금은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 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찰보증금은 신청인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명의로 입금하고,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공동대표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변경 내용(적용일자 : 2024.3.19.)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에서 직접 입찰보증금 납부용 가상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 다만, 10억원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지준 이체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게시(첨부)된 온비드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속
① 낙찰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다) 반환
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②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은행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반환 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법인) 본인 또는 공동 신청 대표자의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환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을 과오납한 경우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전자 개찰 이후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은 반환 기간 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6 대금납부 방법

각종 이자율은 우리 공사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자 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① 대금납부방법 : 2년 무이자 분할납부

대금 납부기간	납부방법				
2년 무이자 분할납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시	6개월 후	12개월 후	18개월 후	24개월 후
	10%	22.5%	22.5%	22.5%	22.5%

② 2년 분할납부 공급토지의 경우 잔금 납부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 도래 5일 전으로 설정되며, 취득세는 잔금 납부 시 일시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선납할인은 매매 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입금된 금액과 선납일수에 대하여 우리 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④ 지연손해금은 매매 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한 금액과 지연일수에 대하여 우리 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매수인이 납부하는 매매 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합니다.

구분	이자율
선납할인율	5.0%
지연손해율	8.5%

7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대금 완납 후 즉시 사용 가능

① 금회 공급대상 토지는 사업 준공된 토지로 매매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jndc.co.kr) 및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부서	문의전화
분양관련	분양보상처	☎ 061-280-0652
도면확인, 공사계획관련	신성장사업처	☎ 061-280-0436

2024년 3월 19일
전 남 개 발 공 사 사 장

CMYK